

모나리자 무색한 마애불 '주의 미소'

불교문화 체험기행 4월

백제인의 미소·숨결 찾아서

신 복의 연두빛을 짙게하는 비가 하루종일 오락가락했다. 때로는 세차게, 때로는 잔잔하게 허공을 가르는 빗줄기가 상쾌한 공기를 실어날랐다. '백제인의 미소와 숨결을 찾아서' 떠난 4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낯선 날씨 속에 출발했다. 그러나 80여명의 답사객들에게 낯선 날씨를 지극한 환희심을 맛보기 위한 전주쪽에 지나지 않았다.

맨처음 도착한 곳은 충남 서산군 운산면에 자리잡은 개심사. 뽕나무, 느티나무, 해묵은 적송이 뒤덮고 있는 물결찬 산을 따라 꼬불꼬불 산길을 오르자 편에 박으로 뒤흠날듯 급지막한 글자 여섯이 반긴다. '상왕산개심사(象王山開心寺)'. 자연스런 맛을 살린 돌과 흙으로 된 계단이 800m나 이어져 있어 머리를 식히며 천천히 오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느낀다. 열린 마음은 망망대해처럼 차별심이 없고 온갖 것을 받아들인다. 큰 돌 작



동원신라시대 석탑양식을 갖춘 수덕사 심층석탑.

은 돌 몇대로 주위다가 쌓아 올린 돌 계단을 올라가면 안양루(安養樓), 그리고 안양루를 굽어보는 대웅보전이 한 눈에 고함임을 느끼게 한다. 보물 143호로 지정돼 있는 대웅전은 다묘(多包) 양식의 조선시대 목조건물로 그 작법이 우아하고 섬세한 건축예술의 극치를 보여준다. 대웅전을 바라보고 왼쪽편에 있는 삼경당은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사용한 천연스러움과 단청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눈길을 끌었다.

요사채 마루에 걸터앉아 산바람을 쏘이는 답사객들. 새 걸음도 되지 않는 트라에서 열린 마음을 읽는다. "우주를 호호하는 내 속에는 우리가 되어버린 너도 있고 나도 있고, 개심(開心)을 잃고 개심(改心)을 했더니 그렇게 개심(開心)이 되어 버렸다"는 어느 답사객의 탐방기를 마음에 걸고 내려왔다.

근세 선불교를 수행과 실천으로 꽃피운 만공(1871~1946)스님의 일화를 가슴에 새기고 도착한 곳은 덕수산 수덕사. 웅장하면서도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대웅전(국보 49호)이 산 아래를 굽어보며 답사객들을 반겼다. 정면3칸 측면 4칸의 주심포계 단층 겹처마 맞배 지붕에 들뜨는 장식은 하지 않은 담백함, 정확한 균형에서 오는 안정감, 그리고 7백여년의 세월을 버텨 온 견실함이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물임을 일깨워준다.

한말 경허선사(1849~1912)가 선종(禪宗)을 크게 일으키고 그 제자 만공스님이 중창한 뒤 많은 후학들을 배출



○ '백제인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마애삼존불의 지비불과 온화한 미소는 차르리 신비에 가깝다. 계절과 날씨, 보는 각도와 마음에 따라 미소가 달라진다.

했으며, 현재 우리나라 4대총림의 하나로 많은 수도승들이 정진하고 있는 이곳 수덕사는 근대 산(禪)의 중흥지로 꼽힌다. 비구니에게 우뚝 선 일엽스님(1896~1971), 지금도 2백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한국불교 최초의 비구니 선원인 견성암에서 용맹정진을 계속하고 있다.

맑은 일렁임에 산내 암자 모두를 들



○ 아름다움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개심사. 크고 작은 돌과 흙으로 된 계단을 오르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열린다.

개심사 대웅전 우아·섬세함 극치 수덕사엔 경허 만공 사자후 가득 백제의 미소에 답사객 탄성 절로



○ 경학스님으로부터 수덕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답사객들.

러 볼 수 없었던 안타개움은 수덕사 스님의 구수한 법담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 덕숭당자를 사모한 수덕도령이 남자의 요청대로 대웅전을 짓고 결혼 첫날 남자를 담백 안자 남자는 사라지고 두 손에는 버선만 남았는데 버선을 들여다본 순간 큼직한 바위와 그 바위 틈새에 버선같은 하얀 꽃이 피어 있어 수덕은 덕숭당자가 관음의 화신임을 깨닫고 절이름을 수덕사라 했다는 이곳의 창건설화는 세속의 탐욕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스님 대웅전에 왜 단청을 하지 않나요?" 답사객중 한 보살이 물었다. "7백살 된 노인이 화장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쁘겠습니까." 최중이 그 길

은 뜻을 깨친 듯 박장대소한다. 마지막 코스는 모두가 마음설레이며 고대하던 서산마애삼존불(국보 제84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마도 이 고사성어는 마애삼존불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로 마애삼존불의 미소는 답사객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가운데 본존인 여래가 서 있고, 양쪽에 한 분은 서 있고 다른 한 분은 한 다리를 다른 쪽에 포개 앉은 반가상을 하고 있는 특이한 배치를 하고 있다.

마애삼존불 미소의 신비는 시간과 날씨, 계절과 보는 각도, 그리고 보는 이의 마음에 따라 변하는데 있다. 누구든지 똑같은 미소를 두 번 볼 수 없으며, 느낌이 많으면 말을 수록 미소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성원 할아버지

(정장옥씨)가 보호각 입구에 커튼을 치고 삿갓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설명을 시작했다. 등을 아홉햇살이 비추는 동남양쪽에서 비추자 밝고 가늘면서도 경쾌로운 미소가 나타났다. 서쪽 해지는 방향으로 비추자 이번에는 지비불과 온화한 미소가 보였다. 그러나 위에서 비추자 미소는 간데 없이 사라졌다. "아니 그럴 수가..." 연신 터져나오는 감탄사를 막은 것은 등을 아래에서 위로 올렸을 때였다. 눈의 형태는 알아볼 수 없었고 근엄한 표정만이 들어온다. 광배를 둘러싼 화염문을 비추자 그 속에서 3명의 아기부처님이 나타났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을 만났을 때의 기쁨, 답사객들의 탄성이 끝까지 울려다녔다.

글=한명우 사진=고영배 기자



■ 마애불 지키는 정장옥씨

신비한 미소에 이끌려 34년째 '국보' 수문장

"서산 마애불이 다시 세상에 나타날 때는 그날 홀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관리인이자 살아있는 수문장이며 그 아름다움의 대변인을 데리고 나타났다고나 할까."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에서 저자 유홍준씨는 정장옥씨를 이렇게 표현했다.

65년 마애삼존불 보호각 준공부터 지금까지 34년간을 마애불을 지키고 있는 정장옥(62세)씨는 마애불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다.

"군대를 재대하면서 방황하던 때였어요. 산산각에 산재를 지내러 왔다가 마애불 보호각을 짓는다고 관리인을 자처했죠."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다만 산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미소짓고 있는 부처님이 볼수록 좋아서 시작한 일이다.

원래는 혼자서만 이곳을 지켰던 것은 아니다. 3년정까지만 하더라도 19세인 노모 심순씨와 함께 있었는데, 노모가 나이가 더이상 이곳에서 기거를 하기 어려워지자 대신 부인이 함께 하고 있다. 81년부터 기능직 9급 공무원으로 임명돼 일해왔지만 작년에 정년을 맞으면서 이곳을 떠나게 될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계속 있게 된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긴다.

삿갓등은 마애불의 미소가 보호각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고심한 끝에 성원할아버지가 고안한 장치. "이제 제가 레드는 방방에서부터 시작해서 해가 옮겨가는 대로 움직이는데 잘 보십시오." 삿갓등을 여러차례 옮기며 마치 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힘없이 설명한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셔야 미소가 더 잘 보입니다. 세상에 이런 미소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모나리자 미소가 이 마애삼존불 미소때문에 보통 고민이 아니랍니다..."

서산 마애삼존불 1959년 발견... 살아있는 듯한 미소 '일품'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연리에 위치한 서산마애삼존불은 높이 2.8m의 백제시대 불상으로, 1959년 발견당시 '위대한 발견'으로 칭해졌다. 이 마애삼존불로 말미암아 백제 불상의 진면목을 알 수 있게 됐음은 물론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애삼존불은 중국이나 일본, 고려나 신라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왼쪽에는 반가상의 보살과 오른쪽에는 보주(寶珠)를 받들고 있는 이른바 부주(捧珠)보살이 선명하게 조각돼 있다. 여래상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문수·보현보살이나 관

음·세지보살, 일광·월광보살이 배치되는 일반적인 삼존불 형식과는 다른 독특한 양식이며, 특히 부주보살에 대해서는 재화갈라보살과 관음보살로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환한 미소다. 6세기부터 7세기 전반에 걸친 삼국시대 불상들은 대개 미소를 띠고 있으나 사실성보다 상징성을 겨냥해 입체감보다 평면감, 양감보다 정면관(正面觀)에 치중하고 있다. 불상을 사방에서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정면에 서서 시점의 이동 없이 본다는 전체화에 제작된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뚝

플과 음매를 표현한 선은 날카롭고 엄격하며 직선이 많아, 인체를 기본으로 했음에도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절대자의 모습으로 부각되기 일쑤다.

하지만 백제불상에는 오히려 인간미가 더욱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마치 실제하는 사람을 모델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가하면 그 미소 또한 현재적이다. '백제인의 미소'로 불리우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주변이 자연경관과 어울리면서 인공과 자연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서산 마애불이 향하고 있는 방위는 동남남 30도로 일조량을 가장 폭넓

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다. 마애불 정면에는 가리개를 퍼뜨 산지락이 둘러쳐 있는데 이는 바람이 정면으로 마애불을 향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마애불이 새겨진 바위위로 마치 모자의 차양처럼 앞으로 나온 큰 바위는 빗방울이 직접 마애불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한 것으로 보여 얼마나 과학적인 계산이래 위치를 잡았는지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음양관계와 시각거리 관계를 고려해 얼굴은 높게 부각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차츰 낮은 부각으로 처리하는 절묘한 기법을 구사함으로써, 어려운 조건에서 제작됐음에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제작된 듯한 편안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 성원 할아버지가 삿갓등을 이리저리 옮기며 마애불의 갖가지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

봉축위원회 공식지정 업체 봉축현수막

2542 Buddha's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98.5.3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현수막 규격	가 격
90cm x 6m	40,000원
90cm x 8m	50,000원
90cm x 10m	60,000원
90cm x 12m	70,000원

※ 지역 사임연합회 단위 단체 주문 환영합니다.
※ 봉축위원회가 제정한 각종 봉축행사용품도 주문 제작해 드립니다.
※ 제작 관계상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감로기획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후문 옆)
☎(02)723-4306~7, FAX:(02)738-8682

봉축위원회 지정 '불자의집' 교패
봉축위원회 지정 봉축 어깨띠
봉축위원회 지정 차량용 스티카
봉축 리본

▲ 크기: 5.5cm x 7cm
▲ 보급가: 1개당 1,000원
▲ 2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고급공단으로 제작
▲ 색상: 노랑색, 분홍색, 오렌지색, 흰색
▲ 1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 10cm x 10cm
● 가격: 300원

▲ 일반리본 ▲ 고급리본
● 색상이 다양합니다 (꽃분홍, 분홍, 노랑, 청색)
● 퀘번용 3단 꽃리본도 있습니다 (1,000원)
● 타사제품과 비교해 보십시오
● 5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